

1990년대 말 중국조선족 문예지 『연변문학』의 지각(地殼/知覺)변동*

金聖來**

- | | |
|-----------------------|--------------------|
| I. 서론 | IV. 새로운 문학장에 대한 구상 |
| II. 시장경제가 바꾼 출판·서지 형태 | V. 나가는 말 |
| III. 민족 동질성의 욕망 | |

● 국문초록

改革開放과 韓中修交는 중국조선족 문예지 『연변문학』의 地殼을 변동시켰고 이로 인해 편집진 사이에 일련의 知覺 변동을 일으킨다. 본고에서는 장지민이 主筆로 있는 동안 『연변문학』에서 한·조·중 문학작품을 비교하는 ‘비교문학’ 계열 코너가 등장한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해 그 전후의 상황을 추적했다. 당시 “배달민족 간의 교류와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실현”이라는 의도로 기획된 ‘비교문학’ 계열 코너와 잡지출판·서지 형태의 변화는 모두 『연변문학』이 “조선어(한국어)문학권”에 속해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추구하는 과정이 차이를 재생산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문예지의 재정난, 문예미학의 변화로 결국 『연변문학』에서 사이버작가협회를 창립하는 등 중국조선족 문단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선회했음을 확

* 이 글은 “2022 한국번역학회-한국비교문학학회 공동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중국조선족 문예지 『연변문학』 속 ‘비교문학’ 코너 분석」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주신 중국문화대 이정민 교수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성균관대 정우택 교수님, 황호덕 교수님과 세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주신 성균관대 김성수 교수님께 특별히 경의를 표한다.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로

인했다.

주제어 : 연변문학, 조선족 문학, 문예지, 재외동포, 코리안 디아스포라

I. 서론

抗日戰爭과 國共內戰을 겪고 1949년 10월 1일, 현재의 사회주의 ‘中華人民共和國’이 건국되었다. 건국 후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나라의 복구와 재정비에 매진했다. 당시 중국 내에 잔존한 조선인들도 새로운 중국에서 공민자격을 획득했고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따라 소수민족으로 인정받아 1952년 9월 3일에는 중국조선족¹⁾들이 집거하는 ‘吉林省延邊朝鮮族自治區’²⁾도 설치되었다. 이후 ‘장백조선족자치현’ 등 자치구역도 증설되고 조선족 초중고교도 많아지면서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게 된다.

다만, “조선족은 해방과 함께 선택을 거쳐 중국에 남은 사람들이었다. 해방직전 2백여만이던 조선인 이주민들가운데서 해방과 함께 그 절반이 조선을 선택했지만 동시에 나머지 절반은 중국을 선택했다.”³⁾ 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 조선인은 조선으로 돌아갔고 그중에서도 안수길 등 중진작가들도 떠나면서 중국조선족 문단은 잠시 진공상태가 되어버렸다. 문단을 재건하기 위해 연변조선족자치구가 설립되면서 연안이나 기타 동북 지역에 있던 조선족 문인들과, 김학철 등 조선으로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문인들, 리옥 등 연변지역에서 창작활동을 이어오던 문인들이 모두 연결로 모이게 된다. “이들은 대부분이 문인이기전에 우선 중국공산당의 각 조직과 당의 령도하에 있는 부대의 선전대에서 활약하던 간부들이었다. 때문에 혁명가이면서 동시에 문인이라는 이중적신분을 가진것이 이들의 신분적특징이다.”⁴⁾ 그렇기에 이들은 문학을 혁명을 위해 추진하는 경향이 강했고 이 시기에 다양한

1) ‘중국조선족’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논쟁이 있으나 본고에서 인용하거나 참고한 대부분 문헌에서 ‘조선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중공동포’, ‘재중동포’라는 표현 대신 ‘중국조선족’ 또는 ‘조선족’으로 한다. 또한, 중국조선족이 한국어(조선어)로 작성한 단행본과 논문을 직접 인용할 때 원문의 문법(두음법칙, 띄어쓰기 등)을 따르도록 한다. 이들 문헌의 용례에 따라 북한을 ‘조선’으로, 남한을 ‘한국’으로, ‘연변/延邊/Yanbian’을 ‘연변’으로 표기한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용어들은 필요에 따라 인용자가 한국식 표현이나 설명을 붙인다.

2) 1952년 당시 ‘自治區’였고 1953년 5월에는 연길시도 설립했다. 그러나 1955년에 중국에서 省급의 自治區는 그대로 두고 地區급은 ‘自治州’로 변경하게 되면서 연변도 ‘自治州’로 행정단위명이 바뀌었고 주인민위원회(現 주인민정부)는 연길시에 두었다.

3) 리광일 외, 『조선족문학사』, 연변대학출판사, 2013, 215면.

4) 위의 책, 216면.

문인, 예술인 조직을 만들었다.

〈표 1〉 중국조선족 문학사 시기 구분

구분	시기	사건
이민시기문학	20세기 초~1931년	1931년 ‘9.18사변(일본이 중국 동북지역 침략)’,
	1931~1945년	1945년 일본 패전
국민시기문학	1945~1957년	國共內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한반도에서는 6.25전쟁
	1957~1979년	반우파투쟁, 대약진, 1966~1976년 문화대혁명, 1978년12월 改革開放 선포
다원화시기문학	1979~1989년	1979년 경제특구설립, 1988년 민영경제 허용, *1989년 동유럽혁명
	1990년 이후	1992년 韓中修交, *1991년 소련 해체

1949년 7월에 열린 中華全國文學藝術工作者第一次代表大會의 영향으로 1950년 1월에는 연길에서 ‘연변문예연구회’를 결성했다가 “1951년 4월 23일 연변문예연구회를 해소하고 연변문학예술계연합회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연변문예』지를 발간함과 아울러 여러모로 조직적인 활동을 벌렸다. 이런 기초 위에서 1953년 7월 10일에 제1차 연변조선족자치주문학예술일꾼대표대회를 소집하고 이 대표대회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문학예술일꾼연합회(약칭 연변문련)를 성립”⁵⁾ 했다. 이어서 “1956년 8월 15일과 16일 이틀 사이에 제1차 연변조선족자치주작가대표대회를 열어 중국작가협회의 결정에 따라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를 성립했다.”⁶⁾ 이는 중국조선족 문인들이 중국 문단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하고, 민족어로 된 잡지를 발간하게 된 것은 그 문인과 독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중국조선족 문학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와 소수민족 정책, 중국 국내외 정세의 영향을 받게 되기에 일반적인 중국 문학사 시기 구분법⁷⁾과 다르기에 〈표 1〉과 같이

5) 조성일·권철, 『중국 조선족 문학 통사』, 이화문화사, 1997, 253~254면.

6) 위의 책, 254면.

7) 일반적인 중국 문학사의 시기 구분법은 대체로 근대문학(1840년 아편전쟁~1919년), 현대문학(1919년 5.4운동~1949년), 당대문학(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현재)으로 나뉜다. 〈표 1〉에서의 구분

정리할 수 있다.

1990년대는 세계적으로는 냉전이 종식되고, 중국에서는 改革開放(특히 1988년 민영경제 허용 이후)과 韓中修交가 성사되면서 중국조선족 문단은 급격한 시장경제와 세계화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새천년을 앞두고 인터넷이 보급되고 출판시장이 변화했으며 남북 간에 평화의 기류가 형성되어가던 1990년대 말에 착안하려고 한다. 앞서 나온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는 1986년에 延邊作家協會로 개칭됐고 그 기관지였던 『연변문예』는 여러 차례의 중·폐간과 창·복간을 반복하다가 1985년에 『천지』로 제호를 변경했는데⁸⁾, 1998년에 와서 또다시 『연변문학』⁹⁾으로 제호를 변경한 후 지금까지 발간되고 있다. 1998년에 『연변문학』으로 제호를 바꾸면서 출판형태가 크게 변화되고 작품 코너에 대해 대대적으로

법은 중국조선족 문학사 관련 서적 중 ‘중국 연변’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시기’에 출간된 리광일 등이 작성한 『조선족문학사』의 시대구분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다른 연구서들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사실 연구자에 따라서 조선족문학사를 구분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다. 조성일과 권철의 『중국 조선족 문학 통사』에서는 중국 문학사의 시대 구분법에 따라서 작성했고, 정덕준 등은 『중국조선족 문학의 어제와 오늘』에서 신중국 건국을 기점으로 크게 두 개의 시기로 나눈 후 다시 각각 4개의 구체적인 시기로 세분화했으며, 오상순의 『조선족 정체성의 문학적 형상화』에서는 “해방 전, 해방 후, 1980~1990년대, 2000년대”로 구분했다. 이들 문학사 기술에 있어서 모두 ‘광복 건국’과 ‘문화대혁명’을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 8) 2001년 9월호 ‘50돐기념특집’에 실린 主筆 장지민의 글(실제로는 동시에 열렸던 창간 50돐, 운동주 문학상 시상식과 미래작가상 시상식에서 발표한 연설문이다)에서 나열한 『연변문학』의 변천사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변문예』(1951.1~1951.12) 격월간으로 총 6호까지 꾸려지다가 정간되었다가 『연변문예』(1954.1~1956.12) 월간으로 복간, 『아리랑』(1957.1~1958.11·12 합간호)으로 이름을 바꿈, 『연변』(1961.5~1966.9)이라는 정치문학종합간행물에 합병되었다가 다시 정간, 문화대혁명 속 7년 6개월간(1966.10~1974.3) 정간, 『연변문예』(1974.4~1984.12)라는 이름으로 복간, 『천지』(1985.1~1997.12)로 이름 바꿈, 『연변문학』(1998~현재)으로 이름을 바꿨다. 장지민, 「『연변문학』이 걸어온 50성상!」, 『연변문학』 2001년 9월호, 8~9면 참조.
- 9) 1998년 2월호 별지로 「알림」을 넣었는데 상급의 비준이 내려지지 않아서 3월호부터 다시 『천지』라는 제호를 쓰게 되었다고 공지했다. 이 시기 잡지는 표지에 ‘연변문학’과 작은 글씨의 ‘월간천지’를 병기했고 판권이나 공지에는 『천지』(『연변문학』 월간사)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그 원인으로는 “전국적으로 신문, 잡지 정돈이 끝나지 않았으므로”라고 언급했다. 1998년에 중국의 신문출판물 관리 기관인 新聞出版署가 《圖書編輯工作基本規程》을 2월 10일에 실행하기로 하면서 대대적인 출판산업에 대한 정비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아마도 이 규정 실행의 여파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다가 9월호 ‘차례’ 앞에 「알림」에 “금년 3월호부터 잠시 『천지』명칭으로 출판되었던 저의 잡지는 『연변문학』으로 개칭할데 관한 국가신문출판서의 허가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라고 공지하면서 제호가 혼란스러운 시기를 끝냈다.

개편하는 과정에서 ‘비교문학’이라는 새로운 코너가 생기게 된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나라의 다른 언어로 쓰인 문학작품 간의 비교연구를 일컫는 말로 ‘비교문학’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특이하게도 이 코너는 한국·조선·중국이라는 세 나라의 한(조선)민족이 한글(조선문)로 쓴 문학작품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코너이다. 코너의 구성은 한·조·중의 작품 앞에 중국조선족 대학교수나 평론가가 해당 작품들을 소개하고 비교분석한 ‘평론’도 넣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4월호부터는 ‘배달문학비교’로 코너명을 변경하면서 한·조·중 이외의 한인 디아스포라 문학도 소개했으나 이 코너는 1998년 10월호까지만 존재했다. ‘비교문학’ 코너와 어느 정도 연관되는 특집 코너로 1999년 3월호의 ‘해외조선인문학특집’, 4월호의 ‘해외문학’뿐이다. 이어서 1999년 6월호부터 시작해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문학’이라는 코너에서 한국 문학작품을 소개하게 되면서 ‘비교문학’계열 코너는 소명을 다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기본자료로 『연변문학』¹⁰⁾ 主筆을 역임했던 장지민과 한국의 출판인 김주팔이 묶은 영인본 『천지』(영인본, 1951~2003)를 주된 저본으로 삼는다. 여기서 단명(短命)의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改革開放이 가져온 시장경제와 韓中修交로 급격히 진행된 중국조선족의 인적 유동을 가시적으로 보여줬던 ‘비교문학’계열의 코너를 훑어보려고 하다. 한편으로는 서지적으로 『연변문학』이 제호를 바꾸면서 어떤 새로운 면모와 새로운 기획을 펼치려고 했는지를 확인해 어떠한 地殼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용 면에서 한·조·중의 작품을 ‘비교’의 대상으로 선정할 때 편집진이 민족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를 고찰하고, 이 코너가 없어진 이후의 시기에 발생한 知覺의 변화도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고는 『연변문학』의 편집진들이 이 코너를 통해서 분단현실 속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중국 소수민족의 일원이라는 두 정체성 사이에서 중국조선족을 어떻게 위치

10) 영인본 출간 당시의 두 편의 머리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주팔과 아직 副主筆이었던 장지민의 노력으로 영인본 작업은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영인본 제1차분’에는 1974~1999년, ‘영인본 제2차분’에는 1951~1973년 및 1991~1992년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 이후로는 별다른 설명은 없지만 영인본 판권지를 확인해본 결과 ‘1993~1997년’의 제4차분은 1998년에, ‘1998~1999년’의 제5차분은 2000년에, ‘2000~2001년’의 제6차분은 2001년 말에, ‘2002~2003년’의 제7차분은 2005년에 영인본을 간행했다. 이상하게 표기상 제3차분이 없는데 영인본 초판 머리말에 1,2차분 실권수의 합이 48권이었는데 1996년 재판되면서 49권으로 늘어난 것을 보아 유실된 권호를 보완해 재판한 작업을 제3차분으로 계산한 것으로 추측된다.

짓고 새롭게 등장한 한인사회의 헤게모니인 한국과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를 했으며, 시장경제 시대에서 중국조선족 문단을 어떻게 재구성하려고 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II. 시장경제가 바꾼 출판·서지 형태

改革開放이 가져온 시장경제는 중국의 출판산업에 강한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지만 문화대혁명의 종식은 어두운 흔적을 여기저기에 남긴 채로 改革開放의 뒤편에 숨어버린다. 『연변문학』은 문화대혁명 이전 시기에, 『아리랑』이라는 제호를 사용한 시기를 빼고는, 중국공산당의 사설을 인용하거나 정책법규를 소개하고 심지어 반우파투쟁의 논조에 동참했었다. 문화대혁명이 고조되어 가던 1974년에 갑자기 『연변문예』라는 제호로 복간하게 되면서 내용적인 면에서 “문화대혁명 시기 마오사상, 마오 숭배가 충만한 미디어로 출발”¹¹⁾하면서 ‘극좌’의 성향을 띄게 된다. 이런 현상은 문화대혁명이 끝나면서 1977년부터 극단적인 성향이 조금씩 수그러들었고 1980년 대로 넘어가면서 改革開放에 힘입어 완전히 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반우파투쟁과 문화대혁명 시기에 숙청되었던 김학철 등 문인들이 점차 문단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1982년 12월호에 통권 ‘105호’에서 1983년 1월호에 통권 ‘260호’로 바뀌게 되었고¹²⁾ 1996년 45주년 특집에 실린 연표인 『《천지》의 발자취』에 역대 편집진 명단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서 이 잡지들이 각기 다른 제호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인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화대혁명 전의 『연변』과 7년 6개월 동안 정간 후 문화대혁명 시기에 복간된 『연변문예』의 主筆¹³⁾이 모두 ‘김해진’이라는 것이 제일 명확한 징표이다.

11) 김성수, 「연변 문예지의 역사와 ‘코리아 문학’ 재구성」, 『국제한인문학연구』 29, 국제한인문학회, 2021(a), 29면.

12) 이는 기존에 있었던 1951년 창간된 『연변문예』부터 시작해 모든 권호를 합산한 통권번호이다. 아마도 검열과 통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에 온건좌파 시절의 잡지들을 잡지의 변화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자 과감히 前史를 인정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13) 경우에 따라 중국식 표현으로 ‘主編’이나 ‘총편집’으로도 표기한다.

이러한 편집진의 명맥이 이어지다가 主筆은 리상각과 리상옥을 걸쳐서 1997년 6월호부터 2002년 7월호까지는 『천지』 영인본 한국 간행작업의 동업자였던 장지민이 主筆이 된다. 2002년 8월호에 主筆이 공란이었다가 2002년 9월호에는 새로운 主筆 김삼의 이름 아래 ‘명예사장’이라는 타이틀로 장지민의 이름이 다시 등장한다. 장지민이 主筆로 있는 동안 1998년에 제호와 판형이 완전히 바뀌었고 ‘비교문학’이라는 코너도 만들면서 한국작품을 소개했으며, 영인본 또한 2003년분까지 간행되었다는 것을 미뤄보아 장지민의 역할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장지민은 한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 韓中修交 이전부터 한국 측 출판인, 문인들과 왕래했으며 시장경제와 세계화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은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장지민 시기의 『연변문학』은 실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어, 가히 天地開闢이라고도 할 수 있다.

“판형이 46배판에서 신국판으로 작아진 대신 면수는 80면 내외에서 3~4백면 내외로 대폭 늘어났고 책 장정과 지질도 고급스럽게 바뀌었다. 종래의 단순한 단색조 선전지 스타일 편집에서 화려한 색채와 세련된 디자인, 다채로운 편집으로 ‘한번 사보고 싶게 만드는 상품’으로 확 달라졌다. 한 마디로 사회주의적 선전지에서 시장경제에 적응한 판매용 상품으로 변화하여 ‘자본’의 위력이 발휘된 셈이다.”¹⁴⁾

1998년 1월호의 표지에 명동춘(現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에 태어나 서울에서 공부했고 일본에서 사망한 인터아시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민족시인 ‘윤동주’의 초상화를 사용했다. 잡지 내용 면에서는 윤동주의 시와 작가소개 및 작품에 대한 평론까지 “명인작품” 코너에 수록했다. 덧붙여서 볼 수 있는 지점은 원래 잡지사에서 주최해왔던 ‘천지문학상’을 ‘윤동주문학상’으로 바꾼 것도 이 시기인데 윤동주의 상징성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윤동주 초상화로 된 표지 뒷면에는 중국 조선족 문인들이 한국과 조선의 문인들과 교류하는 사진들¹⁵⁾도 담겼다. 사진 중에 민족문학론을

14) 김성수, 「코리아 문화 통일과 디아스포라 담론의 욕망」, 『대동문화연구』 11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1(b), 326면.

15) 각각 김학철과 백낙청(당시 한국민족작가협회 이사장)이 서울에서, 전임 연변작가협회 주석 이근전과 소설가 이호철이 판문점에서, 당시 연변작가협회 주석인 조성일과 조선작가동맹위원장 김병

제창한 백낙청, 분단문학 거장인 이호철 등과의 사진, 그리고 서울, 평양, 북경과 ‘판문점’이라는 상징성 있는 장소들에서 찍은 사진을 사용한 것은 분단과 이산을 강하게 인식하고 선택한 사진들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연변문학』은 과거 선진적인 형태와 거리를 두면서 상업화를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민족성’을 강조하는 기획으로 재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1998년 1월호에 완전히 새로운 광고가 뒤표지를 장식했는데 기존의 광고와 두드러진 몇몇 차이점을 보였다. 정리하자면: 1) 컬러로 되어 있다; 2) 簡體字의 광고가 없고 한글, 영문, 繁體字로 문구가 구성되어 있다; 3) 상세한 광고문이 추가되었다; 4) ‘아시아나’라는 한국 기업의 광고가 있다; 5) 호텔과 항공사 등 해외 왕래와 관련된 업종으로 바뀌었다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여기서 먼저 언어의 변화 중에서 繁體字는 중국 내에서 해외 화교를 상대로 할 때 쓰게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영문, 한글과 더불어 쓰인 광고문구는 대외용 광고라는 것이 분명하다. 사실 ‘광고’ 자체는 1998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천지』라는 제호를 사용했던 1988년 7월호에 처음으로 전면에 등장한다. 1988년 3~4월에 민영경제(중국에서는 ‘私有經濟’라고 표현)를 인정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등장한 것이다. 1988년 3월호에 이미 광고경영허가 번호를 판권란에 공시했고 7월호에는 ‘광고’를 명시하기 시작했다. 이뿐만 아니라 9월 호에는 광고들을 전문적으로 모은 <광고란>도 생겼고 판권란에 中國國際圖書貿易總公司를 통한 해외발행도 가능하다고 적었으며 1991년에는 글로만 된 광고 외에도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들과 뒤표지 광고도 등장했다. 이 시기의 광고들은 대부분 백화점, 병원, 건강기능식품 관련 광고였다.

1998년 5월호에 「광고안내」¹⁶⁾를 냈는데 “지금 우리 잡지는 세계 12개 나라로 발행되고 있고 작년에는 한국에 분사까지 앉히고 본격발행을 시작했다.”고 소개하면서 다양한 광고를 모집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 안내를 낸 주체는 『연변문학』의 ‘광고부’였는데 이미 잡지사에 광고 전담 부서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앞서 1998년 1월호에 나온 광고들과 결합해서 볼 때 실제로 해외 광고를 포함해 과거보다 더욱 다양한 종류의 광고들을 취급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에 또 하나의 변화는 총편집

훈이 평양에서, 전임 연변작가협회 주석 김철과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황명이 북경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의외로 한국 문인 관련 사진이 3장이고 조선 문인은 1장 밖에 없다.

16) 『천지』(『연변문학』) 월간사 광고부, 「광고안내」, 『연변문학』 1998년 5월호, 10면.

아래 ‘고문’이라는 타이틀로 9명의 이름이 나열되었는데 10월 호에 그들의 소속이 밝혀지게 된다. 그들은 『연변문학』의 광고주들로 대부분 백화점 지배인이나 병원 원장들이었다. 2003년 1월호에는 아예 후원이사회 이사명단을 공시했는데 전과 달리 기업가 외에 대학교수, 경제인협회 회장들도 있었다. 이러한 광고와 후원의 구조는 『연변문학』이 점차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변화해 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비단 『연변문학』만의 변화가 아니라 중국 전역에 출판업을 포함한 매체·문화산업의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특히 1992년 鄧小平의 ‘南巡講話’로 改革開放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서 미디어산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1994년에 江澤民은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精神產品”으로 지칭해 그 상품성을 인정했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精神產品의 생산과 유통은 시장운행의 일반적 법칙과 나날이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경제수익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렇기에 경제수익성이 좋아야 선전문화사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¹⁷⁾고 강연에 언급하면서 미디어산업의 시장화에 동력을 가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장경제에 어울리는 출판산업에 관련된 정책이 새롭게 출시되거나 개정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자율적인 가격책정¹⁸⁾이 가능해졌으며 저작권 보호법도 여러 차례 개정된 바가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변문학』은 시장화의 돌파구 중 하나로 해외, 특히 한국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먼저, 1993년에 제2차분 영인본을 제작하면서 당시 『천지』 副主筆(영인본에는 ‘부총편’이라고 적음)이었던 장지민과 영인본의 출판사인 대훈사의 김주팔 사장이 작성한 머리말을 주목해보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92년 韓中修交라는 역사적 순간이 무색할 정도로 이미 김주팔은 1990년에 연변을 방문해 『천지』를 접하게 되었고 1991년 6월에 영인본 제1차분을 간행했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과 중국이 韓中修交 이전에 완전히 단절된 상태는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중국이,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에 한국이

17) 江澤民 지, 王振川 편, 「(1月24日)中共中央總書記江澤民在全國宣傳思想工作會議上發表講話」, 『中國改革開放新時期年鑒』, 中國民主法製出版社, 1994, pp.57~62, “随着社会主义市场经济的发展, 精神产品的市场流通同市场运行一般规律的联系愈益紧密, 确实也有经济效益的问题。经济效益好, 有助于宣传文化事业。”

18) 대체로 국가나 정부 기관 관련된 출판물과 초중고교 교과서 및 참고도서 등을 제외한 출판물은 별도로 상부에 신고할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책정이 가능해졌다. 「國家決定改革書刊價格管理」, 『價格月刊』 1993년 7월호, p.37.

참가했다. 특히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 조선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들이 불참하고 강경한 보이콧 태세를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만 참가했다는 것은 여러 지정학적 이유로 분석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미수교국이었던 한·중 사이의 관계개선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韓中修交는 『천지』 영인본 출간과 같은 민간 교류와 함께 1980~1990년대 사이에 진행된 한·중 관계 개선이라는 흐름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 중의 하나로 인지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이러한 장지민 편집체제의 노력이 있었기에, 앞서 「광고안내」에 언급한 것처럼, 1997년에 한국지사도 설립하게 되고 1998년 1월호부터 「정기구독자 모집 안내(국외)」로 해외구독을 받게 된다. 그리고 10월호부터는 아예 한화로 한국 계좌로 구독료를 받는 안내문도 게시했고 그 이후에 구독안내를 ‘국내(중국)’, ‘국외’와 ‘한국’으로 구분해서 3편을 동시에 게시했다. 이러한 해외구독의 동력은 1980년대 말부터 진영 대립적인 사고방식이 퇴조하고 결국 냉전의 종식으로 중국조선족은 다른 나라의 재외동포들과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일부는 해외로 돈벌이를 떠나거나 이주하게 되면서 중국 내 독자층이 크게 변화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정된다. 인적인 변화에 발맞춰 해외 독자를 겨냥해서 낸 「정기구독자 모집 안내(국외)」에서 나열한 ‘한국, 조선, 일본, 미국, 캐나다(캐나다)’등 나라는 모두 한인 재외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이며 중국조선족이 주로 돈벌이하러 떠난 나라들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해외에 머무는 중국조선족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 해외 독자층이 모두 중국조선족이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상업광고 중 일부 해외독자를 겨냥한 광고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독자들도 어느 정도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인 「離散家族 찾기」라는 이름으로 삽입된 수많은 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8년 1월호에 첫 ‘비교문화’ 코너의 시작은 김광웅이 쓴 평론으로 앞부분에 “남과 북 사이에서는 리산가족의 만남이 약속되어있지만 실행되지 않고있으며 심지어 편지나 전화조차 서로 주고받을수 없는 실정이다.”¹⁹⁾고 지적하는데, 분단의 아이러니를 폭로하는 마냥 바로 아래에 한국에 있는 박웅규라는 사람이 중국으로 이주한 백부와 사촌을 찾는 「離散家族 찾기」 글이 삽입되어 있다. 「離散家族 찾기」라는 타이틀은 국한문혼용체로 표기되어 있는데, 『연변문학』이 순수 한글 잡지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실로 이상한 표기법이다. 대체로 중국 내에서 잡지 유통을 위해 쓰인 서지정보

19) 김광웅, 「90년대 배달소설문학 점평」, 『연변문학』 1998년 1월호, 235면.

가 중국어(簡體字)로 되어있는 것 외에는, 중국어로 된 광고나 문장 속 단어에 괄호로 한자병기(이 또한 簡體字)하는 사례들이 아주 드물게 등장할 뿐이다. 특히 1951년에 처음으로 창간된 『연변문예』만 국한문혼용체였다가 1954년에 복간될 때부터 연도를 한자로 표기하는 것 외에는 모두 한글로 되어 있었기에 국한문혼용체의 전통을 갖고 있는 잡지도 아니고 중국조선어의 중요한 참조가 되는 조선에서도 일찍 한자폐지사업을 펼쳤었다. 그러면 유일한 단서는 당시 아직도 신문 매체 등에서 국한문혼용체²⁰⁾를 사용한 한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여기에 실린 사연은 한국에서 중국에,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친족을 찾는 글들이 대부분이었고 극소수 이외 나라에서 보내온 사연²¹⁾도 있지만 조선 관련된 사연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 사연들의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일본식민지기의 강제징용, 광복 후의 동란, 6.25전쟁 등 각자 다른 이유로 이산된 것으로 사연자들이야말로 뼈아픈 이산된 민족사의 생생한 산증인들이다.

‘이산가족 찾기’ 관련된 내용은 1996년경에 광고란에 「리산가족을 찾아드립니다」라는 글이 여러 차례 실렸는데 ‘연길시리산가족소개소’에서 무료로 찾아준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연변문학』에 독자적으로 낸 기획이 아니라 이미 소개소의 형태로 연길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離散家族 찾기」는 1998년에 1~6호에 다양하게 실리다가 ‘배달문학비교’ 코너가 끝난 7월호에서 잠시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8~9월호에 다시 각각 1개씩 실렸는데 모두 동일한 사연자의 글이었고 8월호에는 ‘배달민족비교’ 코너에 위치해 있다. 1998년 10월호에 ‘비교문학/배달문학’ 코너가 갑자기 끝나게 되는데 「離散家族 찾기」도 없어졌다. 정리하자면 「離散家族 찾기」는 ‘비교문학’ 계열 코너와 운명을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밀한 민족정체성 찾기를 ‘한국’이라는 새로운 축과 더불어 기획했었지만 아주 짧은 시기에 빛을 보고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이 수많은 출판·서지형태의 地殼 변동은 각기 어느 정도 ‘비교문학’ 계열의 코너와 접점을 갖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20) 중화권에서 사용하는 번체자도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자와도 일부 차이점을 보이지만 그래도 상통하는 부분이 더욱 많다. 적어도 “離散家族”의 한자표기는 모두 동일하다.

21) 타지역에서 온 사연은 신중국 건국 이후 해외로 재이주한 중국조선족일 가능성이 크다.

Ⅲ. 민족 동질성의 욕망

논의에 앞서, ‘비교문학’ 코너의 탄생을 이해하기 위해 아래 두 글을 병치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

“倍達民族의 싱싱한 文化 生命력을 接하게 하는 것이 學者들의 研究에 寄與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民族魂과 統一을 앞당기는 지름길임을 確信하게 되었다. 民族의 同質性 回復이야말로 오늘날의 時代的 要請이 아닐 수 없다.”²²⁾

“…… 남과 북은 지나간 52년 분단의 체제에서 하루 아침 민족의 동질성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민족의 동질성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시라도 포기해서는 안될줄 안다.

…… 필자는 우리 민족이 세기적인 숙망인 민족의 대화합을 이룩하려면 먼저 남과 북 및 세계 기타의 배달민족문화에 대한 리해가 필요하다고, 또 그 리해를 달성하는데 남과 북 및 세계의 기타 배달민족의 문학을 비교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유조하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문학은 한 시대 그 사회의 리상을 대표하고 그 나라,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²³⁾

첫 번째 글은 김주팔이 1993년 영인본 간행 때의 머리말 격인 「月刊天池 영인 刊行을 완간하면서」에서 자신이 영인본을 간행한 목적을 적은 것이고, 두 번째 글은 김관웅이 1998년에 첫 ‘비교문학’ 코너에서 이 코너를 기획하게 된 의도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김관웅이 김주팔의 머리말을 참조해서 이 코너를 기획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지만 두 문장에서 모두 ‘배달민족’이라는 표현으로 한민족을 지칭하고 있고, 문학연구를 통한 민족정신의 확인과 서로 간의 이해증진이 필요함을 천명하고 있는 것도 유사하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김관웅이 ‘민족의 동질성회복’을 위해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데 이는 김주팔이 주장하는 ‘시대적 요청’으로써의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완전히 같은 표현이다. 그렇기에 여기서의 ‘비교’는 바로 이 ‘시대적 요청’을 이루기 위해 서로 간의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키려고 선택한 ‘기

22) 김주팔, 「月刊天池 영인 刊行을 완간하면서」, 『天池 月刊』 영인본, 대훈사, 1993년(1996년 재판본).

23) 김관웅, 앞의 글, 235~236면.

법'이다. 어쩌면 '비교문학' 코너의 탄생 자체는 영인본 작업이 선행되었기에 가능했을 것이고 김주팔이 직접 영향을 준 것이 아니어도 장지민을 통해 편집진 내부에서 형성된 '민족정체성'에 대한 강한 공감에 만들어 낸 기획일 것이다.

다만, 김주팔이 배달문학을 접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통일'을 앞당길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과 달리 김관웅은 남과 북 외에도 '세계의 기타 배달민족'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상대적으로 순화된 표현을 쓰게 된다. 그는 이 글에서 분단으로 52년 동안 남북 교류가 단절되었음을 설명하면서 괄호에 '구소련이나 중국의 배달민족공동체들과 기타 배달민족공동체들 사이의 격리는 52년을 훨씬 넘는다.'²⁴⁾라고 덧붙이면서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주팔은 한국 입장에 입각해 분단의 시각에서, 김관웅은 중국조선족과 재외동포들을 대변해서 분단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이산이 분단으로 더욱 처참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비교문학' 코너의 탄생은 영인본 작업과, 그리고 '한국'과 관련된 부분이 많지만 이는 한국/한반도의 '땅'의 역사보다도 한(조선)민족·'사람들'의 역사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어쩌면 '비교문학' 코너와 같은 기획이야말로 분단으로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산의 길고도 비극적인 역사의 축소판이자 현주소인 격이다.

김관웅은 이어서 한국 성석제의 「이른 봄」, 조선 림종상의 「쇠찌르러기」, 중국조선족 김영자의 「섭리」를 소개했다. 여기서 성석제의 「이른 봄」이 보여주는 생태주의 문제의식은 1996년 시점에서 새롭지는 않지만 이러한 '녹색사상'은 마르크스의 '홍색사상'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작가적 의식의 전위성과 미학적 시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나 조선작가 림종상의 「쇠찌르러기」를 소개하기 전에는 주체문학에 빠진 조선 문단을 비판하면서 이 작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분단의 문제를 '미국'이라는 타의로 돌리는 것을 지적하면서 독일과 베트남도 모두 자의로 다시 통일했으니 "(남북분단은) 지금도 랭전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있다. 물론 이렇게 된다는 타의나 타력도 많은 악영향을 끼쳤지만 우리 민족 자신도 자신을 반성해야 할 점이 많은줄로 안다."²⁵⁾고 하면서 민족대단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의 입장은 분단의 문제가 당장 통일은 아니어도 반목과 대립은 끝내어 단합해야 하는데, 여기엔 한국과 조선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재외동포들도 민족

24) 김관웅, 앞의 글, 236면.

25) 위의 글, 242면.

의 일원으로 반성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한 셈이다. 이는 또한 ‘비교문학’ 코너를 기획하면서 보이는 강한 민족성에 대한 동질감을 표명한 것이기도 하다.

『연변문학』 연구 중에 ‘비교문학’ 코너를 언급한 선행연구는 김성수가 쓴 세 편의 논문 뿐이다. 김성수가 “오랜 친북 전통이 깨지고 ‘코리아 남북에 대한 등거리’ 외교 관계가 시작”²⁶⁾되는 전환점으로 이 코너를 설명하면서 ‘코리언 디아스포라 문학의 미디어적 상징’²⁷⁾이라고 평가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다. 이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좀 더 부연 분석을 가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시간을 거슬러 1951년 『연변문예』 창간될 때의 상황부터 짚어보자. 당시 『연변문예』는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선전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抗美援朝’로 ‘中朝親善’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잡지 창간을 “중조친선협회의 자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잡지를 편집”²⁸⁾했고 당시 6.25전쟁 시기임에도 조선에서 문인들이 방문해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작품이 조선을 지나치게 강조, 영웅시한 것이 문제”²⁹⁾가 되면서 잠깐 기세가 꺾이다가, 1957년 『아리랑』으로 다시 빛을 보는 듯했지만 결국 반우파투쟁과 문화대혁명 시기를 겪으면서 조선 관련 작품은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 문화대혁명이 종식되고 나서도 조선의 작품은 그다지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다. 1991년 『천지』의 40주년을 맞아 조선의 문예출판사대표단이 연변을 방문해 기념좌담회에 참가했다. 당시 좌담회 내용을 「민족문학의 어제와 오늘을 두고……」라는 글로 정리되어 『조선문학』에 실렸다. 문장의 서두에는 김일성의 교시로 ‘조중친선’을 강조하면서 시작했고 중국조선족 작품이 조선에도 소개되고 조선의 작품이 중국에 소개되는 실상을 언급하면서 서로 향수를 나누기도 했다. “우리 잡지가 걸어온 과정에 잡지 《조선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잡지를 처음 꾸릴 때에도 잡지 《조선문학》을 보고 참고를 했던것입니다.”³⁰⁾라는 증언도 조선과의 깊은 관계성을 잘 보여준다. 『조선문학』에도 간간히 중국조선족의 글이 등장하는데 1997년 8월호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특집에 김성욱의 수기³¹⁾, 1998년 12월호에는 박춘선

26) 김성수, 앞의 2021(b) 논문, 333면.

27) 김성수, 앞의 2021(a) 논문, 32면.

28) 리상각 외, 홍현양 정리, 「좌담회: 민족문학의 어제와 오늘을 두고……」, 『조선문학』 1991년 10월호, 65면.

29) 김성수, 위의 2021(a) 논문, 21면.

30) 리상각 외, 홍현양 정리, 앞의 글, 67면.

이 조선의 소설 「석개울의 새봄」을 읽고 독후감³²⁾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비해 중국조선족 문단과 한국 문단 간의 관계는 늦게 시작되었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그 틈이 봉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으로 한국작품을 소개한 것은 1980년 3월호에 김지하의 시 「타는 목마름으로」, 「밤나라」이다. 1985년 1월호에는 ‘감상과 연구’ 코너에 하근찬의 「수난 2세」와 같은 작품을 소개한 바가 있다. 특히 「타는 목마름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이고, 「수난 2대」 앞에는 자본주의국가에 서의 문학작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취하면서 “남조선 단편소설 《수난 2대》는 제국주의침략전쟁에서 수난당한 두 세대의 참상을 보여주었다. 해학적인 웃음속에 눈물이 있는 읽어볼만한 작품이다.”³³⁾라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남조선’이라는 표기법이다. 사실 1991년 10월호에 성춘복, 김건일의 시를 수록할 때도 ‘남조선’이라고 했지만 1993년 2월호에는 갑자기 ‘한국문학특집’으로 14명의 한국문인의 작품을 소개했다. 해당 특집에는 김규동의 「북에서 온 어머니의 편지」, 신기선의 「어릴 때 조국」과 같은 분단의 아픔을 폭로하는 작품이 주가 되었다. 같은 해 7월호에 ‘조선문학특집’도 편성해서 김일성의 회고록인 「인민의 품」을 포함해서 7편의 작품을 수록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남과 북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2월호 ‘비교문학’ 코너의 시작 부분에 허룡구가 쓴 평론에서 문학에 중요한 것은 언어, 특히 자기 민족어로 진행되는 창작활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어문학권과 마찬가지로 ‘조선어문학권’이라는 개념을 제창하면서 “조선어문학권내의 작가들이 한국, 조선, 중국, 미국, 일본, 로씨야, 카나다 등 나라들과 서구라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지역에서 살고있지만 조선어로 문학작품을 창작하고있다는 점이 최대의 공통점이다.”³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조·중의 한글 시를 소개하면서 시문학의 발전은 자기비평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민족적문학바탕에 둔 심미적기질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³⁵⁾고 강조하면서 조선어문학권 내의 적극적인 교류와 탐구만이 조선어 시단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31) 김성욱, 「조상의 땅에서」, 『조선문학』 1997년 8월호.

32) 박춘선, 「감명이 깊은 소설」, 『조선문학』 1998년 12월호.

33) 「「감상과 연구(코너) 머리말」, 『천지』 1985년 1월호, 86면.

34) 허룡구, 「조선어문학권에서의 3국 시문학 편린비교」, 『연변문학』 1998년 2월호, 285면.

35) 위의 글, 292면.

김관웅과 허룡구의 평론을 보았을 때 대체로 ‘비교문학’ 코너의 구상이 강한 민족적 동질성을 찾거나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분단과 이산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도 있음을 강조했고 민족문화와 조선어(한국어)문학의 발전을 위해 남과 북, 그리고 해외 한인들과 서로 허심탄회한 교류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운동주를 ‘변화’를 알리는 기호로 표지에 사용한 것도 탈냉전과 글로벌시대에 국적을 넘어서는 민족적 동질성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는 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얼마 가지 못했고 그 이후에 『연변문학』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IV. 새로운 문학장에 대한 구상

‘비교문학’계열 코너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던 징조는 이미 그 내부에서 싹 트고 있었다. 특히 『연변문학』은 출판규정을 따르기 위해 한국과 조선의 작품에 대해 轉寫를 했었던 정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느직하게 인색한 별을 내려보내는 겨울해가 뜬 다음, 지난 일이백 년 동안 그랬듯이 바람 자고 햇별 바르기를 기다렸다가 나는 메밀밭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³⁶⁾

“느직하게 린색한 별을 내려보내는 겨울해가 뜬 다음, 지난 일이백년동안 그랬듯이 바람 자고 해별 바르기를 기다렸다가 나는 메밀밭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³⁷⁾

위의 두 구절은 각각 성석제의 원문과 『연변문학』에서 轉寫한 버전에서 따온 것이다. 밑줄을 친 부분은 두 버전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다. 첫 번째 ‘인색’-‘린색’은 두음법칙의 적용여부의 차이이고, 두 번째는 띄어쓰기 법칙이 다름을 알 수 있으며,

36) 성석제, 「이른 봄」,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 2003(개정판), 97면.

37) 성석제, 「이른봄」, 『연변문학』 1998년 1월호, 249~250 면.

마지막 ‘햇별’-‘해별’은 사이시옷 적용 여부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외에도 ‘사냥꾼’이 ‘사냥군’으로, ‘킬로그램’을 ‘킬로그람’으로 표기하는 등 표현이나 표기법의 차이가 있었고 따옴표(‘’) 대신 겹화살괄호(《》)를 사용했다. 그런가 하면 문장에서 한자를 병기하거나 괄호로 부연설명을 붙인 부분은 그대로 따왔고 원문 소설에 대화를 줄표(-)로 하는 것도 보류했다. 여기서 일부 표기법의 차이, 띄어쓰기,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조선의 영향이 크다. 1977년 이전 중국조선어는 조선의 문법을 따르다가 “1977년 8월 동북3성 조선어문 사업 제1차 실무회의에서 <조선말표준발음법, 조선어 맞춤법, 조선말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4법을 채택하였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11월에 『조선말 규범집(시용방안)』이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³⁸⁾ 이로써 중국조선어는 중국조선족의 실정에 맞춰 조선, 한국과 조금은 다른 규범을 적용하게 된다. 그렇기에 중국조선어의 규범에 따라 한국과 조선의 문학 작품을 轉寫해 『연변문학』에 수록했고 이러한 轉寫의 과정에서 생겨난 차이는 더욱 크게 다가오는 법이다.

그리고 <표 2>(부록)를 보면 ‘배달문학비교’로 코너명이 바뀌면서 1998년 5월호에 일본, 카자흐스탄 한인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 바가 있다. 여기에 김봉웅이 평론을 썼는데 이번 코너는 미국의 『해외문학』에 수록된 작품들 중에서 선정했음을 명시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중국의 조선족작가들이 처한 인문환경이 기타 해외동포들이 처한 환경보다 우월하다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여 중국의 조선족문화를 세계에 크게 진출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³⁹⁾라고 글을 맺었다. 이는 일본의 리희성과 카자흐스탄의 박미하일이 모두 한글로 창작하지 못한 점과 해당 국가의 한인 차별문제나 체제 자체의 문제를 의식하고 쓴 것이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민족 언어문화교육을 받은 중국조선족들은 한글로 창작도 가능했고, 改革開放 이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창작환경과 여러 한글 매체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등 중국조선족 문단이 갖고 있는 ‘강점’을 감안한 말이기도 하다. 김봉웅이 이러한 결론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이유는 이 글의 서두에서 찾을 수 있다. “같은 혈통을 가진 동포들의 문학들이면서도 이처럼 내용이 판연히 다른 이질화된 양상에 몸서리

38) 문은희, 「중국 조선어 규범과 한국 어문 규범 비교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2, 10면.

39) 김봉웅, 「민족의 생존환경과 문학양상-미국 《해외문학》에 실린 단편들을 읽고」, 『연변문학』 1998년 5월호, 280면.

를 치지 않을수 없었다.”⁴⁰⁾고 하는데 이는 민족적 동질성을 찾는 과정이 의외로 차이를 부단히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음을 설명해준다. 사실 앞서 다른 평론이나 잡지 곳곳에서도 중국조선족 문학은 ‘조선어문학’인 동시에 ‘중국문학’인 것을 인정한 바가 있고 다른 나라 한인들이 쓴 것과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명심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박미하일이 쓴 작품이 각각 1998년 5월호에는 ‘배달문학비교’, 1999년 3월호에는 ‘해외조선인문학특집’, 바로 이어서 4월호에는 ‘해외문학’⁴¹⁾ 코너에 수록됐다. 코너명에서 알 수 있듯이 교류를 활성화하고 차이를 극복하려고 진행되었던 ‘비교’가 없어졌고 ‘배달’, ‘조선인’과 같은 민족성을 강조하던 표현이 탈각되며 외국작가로서의 ‘해외’라는 수식만 남게 된다. 이 맥락에서 같은 해 6월호에 시작된 ‘한국문학’ 코너를 보자면 ‘한국’은 같은 한글을 쓰고 있을 뿐 결국 ‘외국’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1월호부터 연재 시작한 「연재에세이: 한국인은 누구인가?-흙속에 저 바람속에」는 이어령이 1963년에 발표한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를 연재한 것이다. 여기서는 “리어령 …… 문학출판사 주간, 대학교수, 한국초대문화부장관 력임.”이라고 소개하고, 편집자가 2002년 11월에 문학과사상사에서 再版할 때 사용한 책 소개글을 거의 그대로 따와서 글 앞에 붙인 것이다. 특히 ‘한국인은 누구인가?’라는 부제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참고자료로 이 연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민족이지만 그래도 ‘외국인’으로서의 한국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국’은 ‘동포’의 나라이지만 아직 서로 알아가야 할 부분이 많은 낯선 ‘외국’이 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문화발굴: 세월에 묻힌 겨레의 기억’라는 코너에도 한국에 대해서 겨레로서의 공감과 ‘한류’에 과도하게 빠지는 것을 비판하는 모순적 태도를 동시에 내비쳤다. 사실 이미 韓中修交 이후 한국과의 관계성이 짙어지면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조선족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태도가 이중적으로 정도되어 가고 있었다.⁴²⁾

40) 위의 글, 273면.

41) 이는 미국 『해외문학』의 표제에서 영향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박미하일의 작품들도 모두 여기서 발췌해 온 것이다.

42) 단적인 예시로 김재국의 『한국은 없다』(민예당, 1996)와 같은 책에서 한국에 대한 익숙함과 낯설음을 동시에 표현했다. 그리고 2003년에 재한 중국조선족들의 관련 권익보장을 위해 KCN(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과 같은 조직도 발족해서 더욱 능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비교문학’ 계열 코너의 소멸에는 편집진과 중국조선족 사회가 민족적 동질성 찾기에서 난항을 겪은 것도 있지만 시장경제에 발맞춘 상품화가 그다지 순탄치 못한 것도 한 몫을 했다. 장지민은 2002년 11월호에 500호를 맞이하면서 「《실패담》」이라는 글을 썼다. 여기서 그는 主筆을 맡게 될 때 “시장경제시대에 한 회사가 자기 상품을 많이 팔면 성공이고 적게 팔거나 팔지 못하면 실패라는것은 당연한 리치일것이다. 잡지사도 마찬가지다.”⁴³⁾라면서 발행, 부업, 협찬에 몰두했으나 결국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한탄했다. 적자 상황을 매꾸려고 고문위원회도 만들고 중국과 한국에서 백반의 도움을 청했으나 출판자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어느 날 아침 사직하기로 결심하고 곧바로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엔 신임 主筆에게 자율과 시장경제의 논리를 따를 것을 당부했다. 이는 2002년 8월호에 主筆이 갑자기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실패’ 속에서 중국조선족 문단 내부에 존재하는 커다란 지형의 변화와 연관되는데 잡지사 운영의 근본이 흔들렸고 문인들의 사상과 문예미학마저도 바뀌었다. 대표적으로 광고와 후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이다. ‘해봉’이라는 사람은 1999년 1, 2, 4, 5월호에 걸쳐 4편의 ‘조선족문단순례’라는 부제의 비평을 썼다. 그중 1월호 「정의감의 값어치」⁴⁴⁾에서는 일부 모더니스트라고 자처하는 중국조선족 문인이 대중들에 무관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쓰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장경제의 심화와 한국으로 떠나는 풍조 속에서 문인들이 금전만능에 치우치고 이념과 정의감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4월호 「문인과 문학상」⁴⁵⁾에서는 중국의 魯迅, 茅盾문학상들과 비교해서 중국조선족 신문사, 잡지사에서 주최한 문학상의 자금출처가 모두 사업가들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편집진들이 금전에 아부하고 ‘有產者’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현상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호소했다. 해봉의 지적 중에 주목할 만한 지점은 모더니즘이 미학적 知覺체계를 ‘침입’하고 있어 모더니스트라고 자처하는 문인들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중국조선족 문단은 사회주의 중국에 소속된 문단으로 사회주의사실주의를 제일 높은 문예미학으로 여겨왔다. 40주년 때 문예출판사대표단과의 대화에서 최삼룡은 “《천지》잡지사 일군들은 모더니즘에도 빠지지 않았을뿐

43) 장지민, 「《실패담》」, 『연변문학』 2002년 11월호, 34면.

44) 해봉, 「정의감의 값어치」, 『연변문학』 1999년 1월호, 201~203면 참조.

45) 해봉, 「문인과 문학상」, 『연변문학』 1999년 4월호, 182~184면 참조.

아니라 그 어떤 류파에도 휘말려들지 않고 오직 사회주의사실주의기치를 끝까지 들고 왔습니다”⁴⁶⁾라고 말했다. 그만큼 모더니즘에 대한 경계심은 강했고 다른 유파에 비해 더더욱 사회주의사실주의에 ‘해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그 기세를 건잡을 수는 없었다.

문화대혁명이 종식되고 중국 문단에서도 다양한 모더니즘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朦朧시’나 부조리 소설들이 인기를 끌면서 1980년대 초부터 리얼리즘(사실주의)을 대체할 기세를 보이면서 옹호자들도 속출했으며 포스트모더니즘도 여기에 합세하게 된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과 함께 리얼리즘이 다시 주류로 회귀했다.⁴⁷⁾ 그렇다고 모더니즘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한편으로는 리얼리즘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모더니즘은 문학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예술 전반의 사조로 대두되어 회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그 결과 “중국의 신시기(改革開放을 선포한 이후) 문학은 수동적으로 서방의 모더니즘의 영향을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서방 모더니즘으로 완전한 전환도 아니며 능동적인 자세로 모더니즘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⁴⁸⁾ 여기에도 반론이 많지만 모더니즘의 영향이 중국 전반의 문예사조에 불가역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불변의 사실이고 중국조선족 문단도 그 영향권 안에 포섭된다. 韓中修交로 중국조선족 문단은 “전시기 ‘북경문학’에 참조계를 두던데로부터 ‘서울문학’에 편도되는 모습을 보였다.”⁴⁹⁾ 한국 문학의 문학사적 발전과정은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모방하는 것도 중국조선족 문예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련의 풍파 속에서 장지민은 퇴임 몇 개월 전 민족적 동질성 회복의 좌절, 수익 창출의 실패, 중국조선족 문단의 사상과 미학의 전환에 대처하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2002년 2월호에 중국조선족사이버문학가협회⁵⁰⁾ 창립을 알리는 공고를

46) 리상각 외, 홍현양 정리, 앞의 글, 66면.

47) 張炯 편, 『中國當代文學史 上』, 江蘇鳳凰文藝出版社, 2018, p.42 참조.

48) 위의 책, p.66.

49) 리광일 외, 『조선족문학사』, 연변대학출판사, 2013, 324면.

50) 협회 홈페이지 주소는 <http://yanbian.jl.cninfo.net/ckcla> 이지만, 정확한 경위는 파악되지 않지만 몇 달도 안 되어 해당 단체는 제재를 당해 더 이상 운영되지 못했고 현재 홈페이지도 접속이 불가능하다. 2010년에 김삼이 법정대표인 신분으로 “延邊朝鮮族作家網絡交流協會”라는 사단법인을 등록했고 2021년 등록취하 결정서가 공문으로 접수된 바가 있다. 김삼은 장지민을 잇는 『연변문학』의 主筆이었지만 이 협회는 중국조선족사이버문학가협회와 동일한 단체는 아니다. 또한,

냈다. 본인은 명예회장을 맡고 당시 연변대학교 조문학부의 조교수이자 연변작가협회 부주석인 김관웅이 협회 회장을 맡았다. 부회장이나 관리팀에는 연변작가협회 이사와 여러 중국조선족 미디어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나열되었다. 고문 중에는 당시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장인 성기조, 부회장 중에는 ‘해외 재일동포문단’의 김재국⁵¹⁾이 있는 것도 눈에 띈다. 특히 과거 잡지 고문 구성을 광고주들로 구성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변문학》은 그전에도 그러했거니와 금후에도 의연히 중국 조선족의 대표적문학지의 위치를 확고히 지켜나아갈 것입니다.”

“..... 바로 우리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조선, 나아가서 아시아 각국에 널린 모든 조선족문학인들과 동문으로 할수 있는 사이버문학의 푸른 터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이버문학가협회가 아시아와 전 지구촌에 널린 모든 조선족문인들의 모임으로서 명실상부의 세계문학발전의 일익까지도 담당할 수 있도록 크게 확대”⁵²⁾

장지민의 태도도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첫 인용문은 새 단장한 1998년 1월호의 목차 위쪽에 넣은 장지민의 인사말이고 아래 인용문은 사이버문학가협회를 설립할 때 장지민의 인사말이다. 이를 두 개의 시각에서 풀이해보자. 하나는 ‘사이버문학’의 문제이다. 장지민은 협회 사이트를 ‘광장’으로 정의하면서 문학 이외에도 영상미디어나 생활, 사업 관련 내용도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랫폼임을 시사했다. 사실 2000년 3월호에 한국의 한강 작가의 〈아기부처〉를 소개하면서 한국 용인대학교 신상성 교수의 평론글을 넣어 디지털시대의 출판시장의 변화와 한국의 인터넷문학을

2008년에 주정부의 결정으로 『연변문학』을 비롯한 7개의 조선어 잡지가 모두 연변인민출판사로 귀속되었고 현재 별도의 잡지 홈페이지 없이 연변인민출판사 홈페이지에서 잡지를 구매하거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51) 소개부분에 ‘일본히로시마대학 박사과정’이라는 설명이 추가된 것으로 보아 각주41에 나온 『한국은 없다』의 저자인 김재국으로 추정된다. 중국조선족 출신인 김재국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現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일본 히로시마대학교로 유학한 바가 있어 시기적으로도 일치한다.
- 52) 장지민, 「본 광장은 문학만이 아닙니다」, 『연변문학』 2002년 02월호, 248면.

소개한 바도 있다. 2002년 11월호에서 김기형은 “새 세기는 국제화, 정보화, 지식경쟁의 시대”에 새로운 도전들을 설명하면서 잘만 대응한다면 “영상매체, 전자매체와 활자매체는 서로 대체해버리는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발휘하고 약점을 서로 보완”⁵³⁾해준다고 디지털매체와의 공생을 천명했다.

다른 하나는 ‘조선족문인’이라는 표현이 이중적이라는 점이다. ‘조선족’은 좁게는 ‘중국조선족’을 지칭하는 것이면서도 넓게는 ‘한민족’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어느 쪽에 더 치중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장지민의 뉘앙스는 더 이상 ‘조선(한국)어문학권’에 포섭되려는 노력보다는 그 문학권의 중심이 되거나 아예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문학장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 1999년 8월호에 실린 「변두리문학의 모종 가능성」이라는 장정일의 평론에서 중국조선족 문학은 한국과 조선의 문학에 비해서는 변두리에 처해 있는 문학이라고 자기규정을 하면서도 배가의 노력으로 “한계성이 극복되고 장점이 발휘되면서 변두리문학의 모종 가능성이 차차 현실성으로 솟아오르기를 기대한다.”⁵⁴⁾고 말했다. 사실상 이것이 가능한 전제는 ‘연변’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에 있다고 짐작된다. 전임 主筆이었던 리상각은 ‘500호기념특집’에서 1998년에 제호를 바꾼 이유를 밝혔다. 처음에는 『연변문학』이 지역주의의 느낌이 강하여 타 지역 출신 중국조선족 문인들이 동의하기 어려워했으나 장지민이 主筆을 맡게 될 때 담대하게 이 제호를 채택했다. “《연변》이란 단어가 그래 조선족자치권의상징이 아니고 대표가 아니란 말인가.”⁵⁵⁾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장지민은 ‘연변’이 갖는 특수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원래 『연변문학』은 ‘비교문학’ 코너에서 한국, 조선과 등치되는 단위로 중국이 아닌 ‘연변’⁵⁶⁾을 사용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변이 ‘朝鮮族自治州’로서 하나의 문화단위로 보는 시각이자 한국, 조선과 함께 모두 동등한 민족문화주체로 인식한 것이다. 후기에 ‘중국’으로 표기법을 바꾼 것은 점차 한국을 ‘외국’으로 인식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53) 김기형, 「디지털과의 만남을 위하여」, 『연변문학』 2002년 11월호, 32면.

54) 장정일, 「변두리문학의 모종 가능성」, 『연변문학』 1999년 8월호, 260면.

55) 리상각, 「변화무쌍한 《연변문학》지 이름」, 『연변문학』 2002년 11월호, 26면.

56) 〈표 2〉를 ‘비교문학/배달문학비교’코너가 이어지던 1998년 1~6월호 사이에 1998년 5월호의 非연변 출신 문인 정세봉을 소개할 때 ‘중국’을 사용한 것 외에는 모두 ‘연변’으로 표기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모두 ‘중국’으로 표기했다.

V. 나가는 말

改革開放과 韓中修交라는 시대적 풍파를 겪으면서 중국조선족 문예지의 地殼이 변동하게 되고 『연변문학』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시장경제와 한국과의 만남으로 중국조선족 문인들 내부에 거대한 知覺 변동이 있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장지민이 한국 출판인 김주팔과 함께 영인본 제작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장지민이 主筆로 있는 동안 『연변문학』, 특히 제호를 변경하면서 새롭게 선보인 ‘비교문학’계열 코너가 한·조·중 작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소개하면서 서로 이해를 증진하려는 시도에 주목했다. 본고는 ‘비교문학’계열 코너가 등장했고 한반도 정세도 변화하던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하고 그 전후 『연변문학』의 상황을 추적했다.

먼저, 시장경제 하에 기존 『천지』시절과 비교했을 때 출판, 서지 형태의 변화를 확인했다. 중국에서 1988년에 민영경제를 인정하고 1990년대 초에 출판시장에 대한 다양한 개혁이 있었다. 『연변문학』은 과감하게 제호를 변경하고 판형을 바꾸고 광고나 수익성 개선에 나서면서 상품화에 몰두했다. 무엇보다도 해외구독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는데 그중에서 한국독자 구독은 한국 지사를 설립해서 단독으로 관리했다. 그리고 한국과 조선 문인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운동주를 표지로 사용했으면 「離散家族 찾기」도 만들면서 민족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비교문학’ 계열의 코너에 대한 고찰이다. 김관웅이 쓴 평론에서 이 코너를 기획하게 된 의도를 표명한 바가 있는데, 요약하면 “문학연구를 통해 배달민족 간의 교류와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김주팔이 장지민과 함께 영인본을 간행할 때 쓴 머리말에 밝힌 영인본 간행의 의도와 표현이나 뉘앙스 부분에서 아주 유사함으로 이 코너의 기획이 영인본 작업과정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차이가 있다면, 김주팔은 통일을 앞당기기를 원했지만 김관웅은 분단보다도 이산의 문제에 더욱 치중해 코리안 디아스포라 간의 이해 증진을 강조했다. 과거에 중국조선족 문단은 조선 문단과의 교류를 이어왔다가 韓中修交 전후로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급물살을 타게 됐고 ‘남조선’ 대신 ‘한국’이라고 표현도 수정했다. 중국조선족 문인들은 자신을 ‘조선어문학권’의 일원으로 자처하면서 민족적 동질성을 찾거나 회복하는 데에 힘을 썼다.

마지막으로는 ‘비교문학’ 계열 코너의 소멸과 그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코너의 소멸은 복합적인 상황이 종합되면서 초래한 결과이다. 첫째로는 민족적 동질성을 찾는 과정이 의외로 차이를 확인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이 되었고 중국조선어 문법에 따라 문학작품을 轉寫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중국조선족 사회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중적이고 회의적인 태도가 강해지면서 결국 한인들은 같은 동포인 동시에 서로 생활환경과 정치경제체제가 다른 ‘외국인’이라는 것만 더욱 부각되었다. 두 번째로는 시장경제에 발맞춘 상품화가 순조롭지 못했고 잡지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하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문인들 사이에 생겨난 知覺 변동이다. 문인들이나 잡지사, 문학상 주최자 모두 금전만능주의에 경도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문예미학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사실주의보다는 모더니즘의 세력이 점차 커지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문단 전체에 감돌고 있는 문제들이면서도 중국조선족 문인들이 한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네 번째는 바로 문학장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구상이 대두된 것이다. 연변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부각되고 중국조선족사이버작가협회를 창립하여 과거에 세계 한인문학에 편입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조선족 문단이 중심이 되어 능동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포부를 보였다.

거대한 地殼 변동으로 연속적인 知覺 변동을 발생시켰다. 시장화, 세계화, 디지털화의 속도에 따라가려고 백반의 노력을 총동원하는 중국조선족 문단의 노력은 애석하게도 자신들이 원하는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하지만 사정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이 과정 속에서 자립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2001년 9월호에는 창간 50주년을 맞아 한국과 조선에서 축하메세지를 보내온 것으로 보면 한국-조선-연변의 민족문화적 유대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본고는 중국조선족 문학 연구, 매체 연구, 나아가 전환기로서의 20세기 말 중국조선족의 인식 변화 탐구에 적게나마 이바지하고자 했다. 다만, ‘비교문학’ 계열 코너에 수록된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분석이 부재했고 조선 관련된 내용에 관한 조사와 추적이 미흡한 부분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겠다.

〈표 2〉1998년 1월호~1999년 6월호 ‘비교문학’ 관련 코너에 소개된 작품 목록⁵⁷⁾

연도/호	코너	제목	작가	유형	국적	
1998년 1월호	비교문학	90년대 배달소설문학 점평	김관웅	평론	(중국)	
		이른봄	성석제	단편소설	한국	
		쇠끼르러기	림종상	단편소설	조선	
		섭리	김영자	단편소설	연변	
1998년 2월호		조선어문학권에서의 3국 시문학 편린비교	허룡구	평론	중국	
		노래여 노래여	리근배	시	(한국)	
		2월의 흰 눈송이	홍현양	시	(조선)	
		저 누런 황소를 바라보며	석화	시	(연변)	
1998년 3월호		비교문학	내심세계 심미화과정에서의 각이한 표현	최웅권	평론	(중국)
			황소개구리	한승원	단편소설	한국
			푸른 들	김호석	단편소설	조선
			흐느끼는 땅	조성희	단편소설	연변
1998년 4월호	배달문학비교		흐르는 물을 읊은 시 3수	최삼룡	평론	(중국)
			한 바위에 앉아서	조기천	시	(조선)
			계곡에서	김관식	시	(한국)
			시내물	김성휘	시	(연변)
1998년 5월호	비교문학		민족의 생존환경과 문학양상	김봉웅	평론	중국
			8월의 비(碑)	리희성	단편소설	일본
			나비의 꿈	박미하일	단편소설	까자흐스탄
			빨간 《크레용태양》	정세봉	단편소설	중국
1998년 6월호		비교문학	시문학의 자유와 사명	최창록	평론	(중국)
			그는 어디에 있는가	리성애	시	조선
			청보라밭에서	조태일	시	한국
			사람이 그림다(외 1수)	김학송	시	연변
1998년 7월호 <관련 코너 없음>						

57) 잡지 지면에 소개글이나 직접적인 국적·지역 표기가 없는 경우 괄호로 표기.

1990년대 말 중국조선족 문예지 『연변문학』의 지각(地殼/知覺)변동

1998년 8월호	배달문학비교	분단상황을 둘러싸고 쓴 동시들에 대한 비교연구	김만석	평론	(중국)
		무등산의 진달래야	량광찬	시	조선
		휴전선에 선 감나무	신현득	시	한국
		3·8선의 덩굴풀	한석윤	시	중국
1998년 9월호 <관련 코너 없음>					
1998년 10월호	배달문학비교	벼랑 그리고 기암괴석의 파격의 멋	장정일	평론	(중국)
		일하는 기쁨	조병화	수필	조선
		새로운 느낌	리상현	수필	한국
		유머-남자의 멋	리화숙	수필	중국
1998년 11월호 <관련 코너 없음>					
1998년 12월호 <관련 코너 없음>					
1999년 1월호 <관련 코너 없음>					
1999년 2월호 <관련 코너 없음>					
1999년 3월호	해외조선인문 학특집	T.B.두브롭스카야	공령희	소설	로씨야
		그날	리정희	소설	까자흐스탄
		나비의 춤	조운호	시	미국
		시선	양원식	시	까자흐스탄
		인생과 조국	동기춘	시	조선
		사람이 되기까지	정장	시	일본
		나의 무능과 무력도 감사하고	구상	시	한국
		도자기단상	한익화	시	한국
		이상기운(외 2수)	박건호	시	한국
1999년 4월호	해외문학	기다림	박미하일	단편소설	까자흐스탄
1999년 5월호 <관련 코너 없음>					
1999년 6월호	한국문학	꽃입속의 가시	박완서	단편소설	한국
		전통적금기와 무의식적 전통거부	송현호	해설	한국

투고일: 2023.01.29

심사일: 2023.02.21

게재확정일: 2023.03.02

참고문헌

- 장지민 편, 『천지』(영인본, 1951~2003), 대훈서적, 1993~2005. [원본: 『연변문예』 (1951~1956, 1974~1984), 『아리랑』 (1957~1958), 『연변문학』(1959~1961, 1998~2003), 『연변』 (1961~1966), 『천지』 (1985~1997), 『연변문학』 1998~2003]]
- 리상각 외, 홍현양 정리, 「좌담회: 민족문학의 어제와 오늘을 두고……」, 『조선문학』 1991년 10월호
- 김성옥, 「조상의 땅에서」, 『조선문학』 1997년 8월호
- 박춘선, 「감명이 깊은 소설」, 『조선문학』 1998년 12월호
- 江澤民 著, 王振川 編, 「(1月24日)中共中央總書記江澤民在全國宣傳思想工作會議上發表講話」, 『中國改革開放新時期年鑒』, 中國民主法製出版社, 1994
- 「國家決定改革書刊價格管理」, 『價格月刊』 1993년 7월호
- 권철 외, 『중국 조선족 문학 통사』, 이화문화사, 1997
- 리광일 외, 『조선족문학사』, 연변대학출판사, 2013
- 오상순, 『조선족 정체성의 문학적 형상화』, 태학사, 2013
- 정덕준 · 김정훈, 『중국조선족 문학의 어제와 오늘』, 푸른사상, 2006
- 張炯 編, 『中國當代文學史 上』, 江蘇鳳凰文藝出版社, 2018
- 김성수, 「연변 문예지의 역사와 ‘코리아 문학’ 재구성」, 『국제한인문학연구』 29, 국제한인문학회, 2021
- _____, 「코리아 문학 통일과 디아스포라 담론의 욕망」, 『대동문화연구』 115,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1
- _____, 「조선족문학의 민족 정체성과 『연변문예』 매체사」, 『상허학보』 66, 상허학회, 2022
- 김광수 외, 「한국과 조선 그리고 중국조선어 맞춤법의 비교연구」, 『중국조선어문』 2015(2),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15
- 리광일, 「중국 조선어와 한국어의 띄어쓰기에 관하여」, 『중국조선어문』 2022(4),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22
- 문은희, 「중국 조선어 규범과 한국 어문 규범 비교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12
- 劉宏平, 「改革開放以來中國出版業市場化道路探索研究」, 安徽大學碩士論文, 2011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he Korean-Chinese Literary Magazine “Yanbian Literature” in the Late 1990s

Jin Shenglai

The Reform and Opening Up and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brought structural changes to the Korean-Chinese literary magazine “Yanbian Literature,” which led to a series of perceptual changes among the editorial team. While Zhang zhimin was the chief editor, the “Comparative Literature” section appeared in “Yanbian Literature” comparing South Korean, North Korean and Korean-Chinese literary works. In this paper, the changes before and after starting from the late 1990s was tracked. It was emphasized that changes in form of publishing and the appearance of the series of “Comparative Literature” planned with the intention of “realizing exchanges between Korean nations and restoring national identity” was a member of the “Korean literary circle”. However, the process of pursuing the restoring national identity falls into the dilemma of reproducing differences and at the same time the magazine experienced financial difficulties and changes in literary aesthetics. In the end, “Yanbian Literature” tried to develop in the direction of the Korean-Chinese literary circl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Cyber Literature Association and other forms.

Key Words : Yanbian Literature, Korean-Chinese literature, Comparative literature, Overseas Koreans, Korean diaspora

